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그는 유배지 강진을 떠나 한강변 고향 집을 향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의 기약 없던 유배가 풀린 것은, 귀양살이 열여덟 해째인 1818년이였다. 고향길에 오른 것은 그해 음력 9월이었다. 올해 양력으로 치면 10월 중순이다.

월출산 누릿재를 넘어, 영산강을 건너고, 장성 갈재를 넘는 그 길. 다산은 정읍과 논산을 지나 공주의 금강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가 18년 전 겨울 유배지를 향해 남으로 내려가다 금강에 이르렀을 때는, 2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금강을 건너던 10대의 젊은 시절을 추억했다. 18년이 훌쩍 지난 가을, 다시 금강을 지날 때는 또 무엇을 추억했을까. 공간과 시간은 어떻게 서로 결합하여 고유성을 부여하며 또한 이어지게 한다.

200년이 지난 후, 그 길을 우리는 걸었다. 길이 그때와 똑같을 리 없다. 그래도 둘러싼 산의 능선들과 하늘의 모습, 그리고 햇빛과 바람의 방향은 흡사했으리라. 강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대체로

가을을 걷다

직선에 가까웠다. 들뜬은 황금빛 물결이 출렁거렸다.

그때 다산의 나이는 57세였다. 그는 40대의 전부와 50대의 상당 부분을 유배지에서 흘려보냈다. 그에게 인생의 황금기 또는 빛나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입신양명의 꿈을 키우며 운길산 수증사를 오르내리던 때였을까. 정조 대왕을 만나 인정을 받고 관료로 활약하던 때였을까. 아니, 먼 남쪽 바닷가에 팽개쳐져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며 다산초당에서 엄청난 학문적 축적을 이룬 때였을까. 혹은 고향에 돌아와 노년을 유유자적하던 때였을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200년 전 다산 선생과 비교되는 내 나이 탓일 게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은 세속적인 성취 정도로 정해질 수 없다. 사람들의 선망이나 인정에 따라 정해질 수도 없다. 그것은 덧없는 것이다. 왕자 유희의 영화 '화양연화' (花樣年華, 2000)가 시사하듯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불행했던 때가 아름다운 시절로 추억될 수 있다. 부족하고 미진한 바로 지금이 훗날 '화양연화'로 추억될지 누가 알겠나.

어쨌든 길은 서울로 통하기에 서울로 가는 길과 교통수단은 다양하다. 도보길

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평행으로 달리고 있었다. 10여 일의 해배길 걷기를 진행하면서, 나는 중간에 도보단 대열을 빠져나와 서울을 왕래해야 했다. 교통수단은 고속철이었는데 교통수단에 따라 속도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이동 중에 생각하는 것도 사뭇 달라진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다. 공간 이동에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수단으로도 시간의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8)에서, 브래드 피트가 분한 주인공은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아이의 모습으로 죽는다.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기괴한 삶이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렇게 시간을 거꾸로 살지만, 결코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는 못한다.

시간은 흐르고 회한은 남고

영화 '빠삐용' (1973)에서 스티브 맥퀸이 분한 주인공은 감옥을 탈출하려다 실패해 목방에 갇힌다. 꿈속에서 만난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준엄하게 유죄를 선고한다.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는 더 이상 결백과 무죄를 항변하지 못한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NGO 칼럼



문기준  
광주YMCA 사무총장

3·1 운동 100주년과 광주의 시대 정신

이유 하나만으로 묻고 또 묻게 된다. 광주에서 벌어진 3·1 운동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동해 일어났다. 1919년 2월 말 서울에서 김필수 목사가 광주에 내려와 독립운동가이자 3·1 운동 실패 후 광주YMCA를 창립하게 될 최홍중과 광주YMCA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될 나주 출신 독립운동가 김철을 만나게 된다. 광주 거사는 큰 장날인 1919년 3월 8일 오후 2시로 하기로 하고 최홍중과 김철은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3·1 만세 운동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간다. 그날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질 때 당시 인력거에 타고서 이를 지켜보던 최홍중은 감격적인 분위기에 잠을 수 없어 인력거 안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그만 중로 경찰사에서 연행돼 구속되고 만다.

결국 광주에서 거사는 김철 혼자 맡게 됐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3월 10일 오후 3시 양림동에서는 교인들과 송일·수피아 등 학교 학생들이 내려오고 일반 시민들은 서문동으로, 농업학교와 시민들은 북문동을 거쳐 삼시간에 1000여 명의 인

파가 장터에 모여들게 됐다. 이때 참여했던 주동자의 상당수가 뒤에 광주 YMCA 활동의 주역이 된다.

광주YMCA는 3·1 운동의 실패와 좌절로 당시 광주에서 독립운동의 주동자였던 최홍중 목사를 비롯 송일학교 교사와 광주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1920년 7월 28일 지금의 양림교회 옆에 있는 오웬 기념관에서 창립을 하게 됐다.

이제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 그 날로부터 100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순간 독재에 항거해 일어난 4·19 학생혁명, 유신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끝에 일어난 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2016년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에서 3·1 만세 운동은 그 첫 시작점이 아닐까 한다.

불의한 독재에 항거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3·1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광주는 이제 3·1 운동 100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시의 핵심 가치를, 지금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새로운 비전 선

다산은 고향에 돌아간 후 몇 해 지나 회갑을 맞이하자 자신의 묘지명을 썼다. 죽은 후에 누군가가 잘 써 줄텐데, 왜 스스로 묘지명을 썼을까. 임오년에 태어나 임오년을 맞이한 그는 갑회가 자못 컸다. 지난 60년의 생을 돌아보며 매듭짓고, 다시 시작하여 여생을 잘 마치고자 했다.

호남·호서의 서쪽 들판은 제법 넓고 그래서 하늘도 넓다. 저녁 해가 넓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새들은 떼 지어 어디론가 날아가고, 나그네의 마음은 바빠진다. 길 떠나는 새벽의 바쁘과는 다르다. 열린 시간과 길을 향해 서두르는 것과 시간이 답합에 따라 길을 서둘러 멈추는 것이 같을 수 없다.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은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회한과 아쉬움이 스밀 수밖에 없다.

인생의 불날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여름은 시간을 돌아보기 어렵다. 지난 여름 이어따했던 지금은 가을이다. 가을은 짧다. 한창 무르익다가 불꽃을 이룬가 싶더니 순식간에 낙엽으로 흩어지고 말 것이다. 2018년 그 가을을 나는 걸었다.

\* 지난 10월 중순, 강진군과 다산연구소에서 주최한 해배길 걷기를 비롯한 다산해배 200주년 기념행사('강진에서한강까지 다산과 함께 길을 걷다')에 참여했다. 여러 일이 있었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생각 한 조각을 기록하여 둔다.

포와 함께 독립 선언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광주는 3·1 운동의 정신이랄 수 있는 '자유 독립', '민족 통합'을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로 '주권재민'을 광장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힘으로, '정의·인도', '역강부약' (抑強扶弱)을 사회 공공성 회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이야말로 3·1 정신의 재현이자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제를 개발하고 정의·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생명평화의 지구촌 공동체를 향한 비전 선포가 곧 3·1 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이후 광주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1 운동 주역이었던 우리 시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당시의 후손들을 찾고 발굴해 그들과 손을 잡고 3·1 운동 100주년 이후 광주 정신에 기반해 민족 통일과 지구촌평화를 위한 비전 선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귀어 문화 축제 어떻게 봐야 하나

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개최되었고, 논란이 시작됐다.

1997년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어성개발원(현 한국어성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 바로 정권 교체가 됐다. 호남 출신이 없고, 박사 학위 주제가 정보·문화라 사회문화연구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음란물 등급 심의,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했다. 석사 논문주제인 성 억압 이론이 도움이 되었으나, 그 때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인간의 성역역시 역사적 문화와 환경적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달리 동성에게 갖는 성적 지향이고 동성애자는 이러한 성적 지향, 즉 동성의 성교를 좋아하고 흥분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로 소수로, 동양에서는 '남색'으로 불린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대체하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차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동성애 집회를 반대한다'며 광주 교계와 시민들이 3

만 명 이상 모여 집회를 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특수한 성적 지향을 지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 점이다. 성적 지향은 권리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데, 그런 취향을 가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성적 지향은 특정 환경의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 항문 성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지속적인 성행위를 통해 동성애자가 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성애가 소수자들의 법적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리가 된 것은 서구와 다른 성 개념의 오인이다. 이를 '진보의 착각'이라 하는데, 진보와 보수의 기준인 현 상태는 남성과 여성, 양성인데도 양성에서 파생한 일부 의미인 주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젠더는 '성 인지'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전략적 개념, 즉 남성과 여성이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행을 변화시키는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영어로 흑세무민하

듯이 젠더 평등, 젠더 폭력 등 무분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동성애라는 특수한 성적 지향이 문제시된 것은 6·25전쟁, 미군 주둔, 분단 상황 등 우리의 아픈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동성애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성 개념에 오인한 과도한 법적 해석이자 월권이다. 인간의 본성이 동성애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 규범의 사회 문화적인 제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성적 지향은 소수자 권리라는 미명 하에 보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혐오가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았는가! 동성애 역시 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성 취향에 대한 혐오로 변화되어야 할 성문화인 것이다. 그런데 법과 공권력의 보호로 문화 행사를 한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예산 전쟁 돌입 지역 의원들 국비 확보 총력을

국회가 모레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새해 나라 살림은 물론 각 지자체의 살림을 결정지을 '예산 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열리면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다음달 5~6일 종합 정책 질의에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엔 비경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그대로 지켜내거나 혹은 삭감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다행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3.2% 늘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전남도 역시

10.9%가 증가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지원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예산 등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도 남해안철도 전철화와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시도는 다음 달 초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 예산의 추가 반영이나 증액은 물론 이미 반영된 예산의 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소속 당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도 및 의원들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좋은 발상이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회합을 갖고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공론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20대 국회 들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택-오송 북북선화를 대신해 천안아산-세종-광주-익산으로 연결하며 세종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노선이 신설되면 행정수도인 세종시 활성화와 함께 호남 KTX의 시간 단축과 요금 인하 효과가 있어 세종시와 호남은 이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내년에 세종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편다. 이 의원은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해 병목 현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정

부가 오송~평택 간 KTX 노선 북북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2005년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호남 입장에서선 잘못된 기존 노선을 북북선화하는 것보다 '천안아산~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북선화나 새로운 단거리 노선 신설이나 비용도 거의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2005년 호남선 KTX 노선 결정 과정에서 호남 주민들이 노선 직선화를 요구했으나 지역균형 발전과 정치 논리에 밀려 현재 노선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아무쪼록 모처럼 함께 만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역을 통과하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에 의견을 모아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

無等鼓

옛그제 우연히 '홍부외과'란 드라마를 보게 됐다. 원래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본 때문인지 순식간에 드라마에 몰입됐다. 이날 방송 편에는 한 홍부외과 의사가 '태아 대동맥 판막협착 풍선확장술'이란 어려운 수술을 라이프로 진행해 성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드라마에서 의사 역을 맡은 배우 엄기준은 실제 수술 현장을 방불케 하는 손끝 연기를 펼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캐릭터의 심경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정 연기도 좋았다.

연출진은 이 드라마에 대해 의사로서의 사명과 개인으로서의 사연이 중

홍부외과·소아심장외과로 나뉜다. 이처럼 중요 장기를 다루는 홍부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생명과 연결된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홍부외과 의사는 개업하기도 힘들고 그들의 의료서비스의 수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힘든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홍부외과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갈수록 줄어,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이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못 채우는 지방 대학병원이 부지기수였다. 전남대병원에도 정원 내명

홍부외과 의사

중 한 명만 채웠을 뿐이다.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들이 수술 보조를 받기도 힘들 수밖에 없다. 홍부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부의과는 인체 중 홍부, 즉 가슴에 위치하는 심장·폐·기관·식도·대동맥 등 생명 유지에 기본이 되는 중요 장기의 질환과 흉벽·종격동·횡격막·늑막 등에서 발생한 질환을 진단하고, 주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전문 진료 분야다. 중요 장기들에 발생하는 질환별로 더욱 전문화된 하위 분과로는 성인심장외과·일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